

재중-유천-준수 변호인측 "SM과 협의로 끝내려했는데"

길혜성 · 입력 2009. 7. 31. 23:30 · 수정 2009. 8. 1. 08:04

[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]



동방신기의 시아준수,믹키유천,최강창민,유노윤호

5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,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법정 대리인 측이 입장을 밝혔다.

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의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31일 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"세 명과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지는 최소 2달 이상으로 꽤 오래됐다"고 밝혔다.

이어 "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측과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잘 해결해 보려 노력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,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"이라고 전했다.

세종 측은 또 "전속 계약서에 불공정 관련 사안들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행해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"며 "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과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밝힐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.한편 이번 소송에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.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각각 오는 9월과 연말 방송될 MBC '맨 땅에 헤딩' 및 '파라다이스 목장'을 통해 드라마 본격 데뷔를 앞두고 있다. '파라다이스 호텔'은 아직까지 방송사를 확정되지 않았다.

동방신기는 2004년 데뷔 후 현재까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다.[관련기사]☞ 동방신기 멤버 3명, SM에 전격 계약해지 소송..최대 위기☞ '해체 위기' 동방신기, 파문 3가지 배경은?☞ '해체위기' 동방신기는 어떤 팀?☞ '위기' 동방신기, 가요계 및 국내외팬들 충격.."해체만은 안돼"

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"372 누르고 NATE/magic@ez-i"

comet@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제보 및 보도자료 star@mtstarnews.com < 저작권자 © '리얼타임 연예속보,스타의 모든 것' 스타뉴스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

길혜성

스타뉴스 & starnewskorea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